

제22서경호 어선사고 인명구조 및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

- 강도형 해수부 장관, 어선 사고 발생 보고 받고 인명구조 및 수색 신속 지시 -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9일(일) 시간 미상, 전남 여수시 상백도 동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대형트롤 제22서경호 침몰(추정)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.

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“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 및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, 인근 선박과 해경 등과 협조하여 인명피해 최소화하여 만전을 기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현재, 승선원 14명 중 1명을 구조하고, 해양경찰청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구조 중이다.

△ (사고개요) '25. 2.9.(일) 시간미상, 전남 여수시 상백도 동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대형트롤 제22서경호 침몰(추정)

* 제22서경호(139톤), 14명 승선

△ (02시 40분) 「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」에 따라 위기경보 “심각” 발령

△ (현재 피해현황) 14명 중 1명 구조 중
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	책임자	과 장	임태호 (044-200-5550)
	어선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강은 (044-200-5526)